

1

중세의학

중세의 의학

약 1000년

로마제국이 멸망한 **기원 476년**부터
동로마제국이 몰락한 **기원 1453년** 사이



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
루터의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는 시점과 일치

- 북으로부터의 게르만 족의 침략으로 파괴된
그리스 · 로마 문화와 함께 의학은 쇠퇴
- **갈레노스(Galenos)**만이 우상처럼 숭배의 대상이었던 시기

“교회는 피를 보는 것을
싫어한다.”

Ecclesia abhorret a sanguine

성직자 의사의 외과 관여를 금함

- ✓ 외과는 중세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
- ✓ 내과에서 분리되어 비전문가
 - 이발사, 목욕탕 주인, 교수형 집행인, 접골사, 환관, 그리고 돌팔이 의사의 손

12세기 중반

볼로냐의 우고 다 루카 (Ugo da Lucca)

“상처가 나으려면 끓는 게 좋다.”

잘못된 설을 강력히 반대

- ✓ ‘건조’가 창상(創傷)의 일차적인 치유의 조건임을 알고
알코올(포도주)의 사용을 설파
- ✓ 마취성 약용식물 액즙을 해면에 적셔 흡입시킴으로써
수술시에 흡입마취법도 실시

13세기

구글리엘모 다 살리체토 (Guglielmo da Saliceto)

- ✓ 비잔틴 출생으로 볼로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, 5권으로 된 '외과학(Cyrurgia)'을 저술
- ✓ 국소 해부학적 지식도 풍부했고, 여러 종류의 수술기법에 통달



테오데리코(Theoderico)

수술 시에 불에
달군 쇠를 쓰는 것을
반대하였고,
메스를 다시 쓰도록
요구

- ✓ 내과에도 통달하여 '보건과 치료대전
(Summa conservationis et curationis)'이라는 명저도 발간

13세기

구글리엘모의 제자 랑프랑코(Lanfranco)

- ✓ 밀라노 태생으로 1290년 정쟁(政爭)에 말려, 밀라노에서 추방되어 **파리**로 감
- ✓ 파리의 대학에서 우수한 외과의로 공론보다는 **실제경험**을 중요시하며 가르침

“외과 총람”

Art completatotius chirurgiae

- ✓ **이탈리아의 발전된 외과학을 프랑스에 이식한** 사람으로 평가

13, 14세기 사이

앙리 드 몬데비유 (Henri de Mondeville)

- ✓ 몽펠리에에서 **의학**을, 볼로냐, 파리에서 **외과**를 공부
- ✓ 화농 없는 창상 치유를 주장한 사람
- ✓ 해부도는 해부 도보(圖譜) 발달사의 귀중한 자료가 됨



14세기 사이

기 드 솔리악 (Guy de Chauliac)

- ✓ **대외과학(大外科學)**은 16세기까지 외과학에서 가장 높은 평가

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 의학교



법학

학예학

의학교

✓ 살레르노 의학교와 경쟁관계에 있었는데, 13세기에 대치할 만큼 성장

- ➡ 피레네 산맥을 거쳐 일찍부터 **아라비아의학**이 보급
- ➡ 여러 인종이 함께 하고 있어 **관대하고 자유로운 기풍**이 지배

아르날두스 Arnaldus

몽펠리에의 의사로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고,
중요한 **의학상의 저술**을 남긴 인물

의료잠언(Parabolae medicationis)

-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능가하는
높은 윤리적 · 학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
- **약물요법의 원칙**에 관한 기술은
현대의학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것

아르날두스 Arnaldus

- ✓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소유한 의사
- ✓ 병을 매우 섬세하게 관찰하여 분류
- ✓ 환자의 개별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
- ✓ 불필요한 약재보다 양생과 식이요법을 중시

몽펠리에 의학교는 14세기 중반 이후에 눈에 띄게 쇠퇴

→ 페스트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교회세력의 약화 등이 쇠락의 원인

교회가 시체해부를 금(禁)하여
못했을 것이라는 추정

13세기부터
실시

볼로냐대학의 몬디노
(Mondino de Lucci)

- 1306년부터 시체 해부

길레르모
(Guilermo da Vallignani)

- 이미 1302년에 시체해부를 한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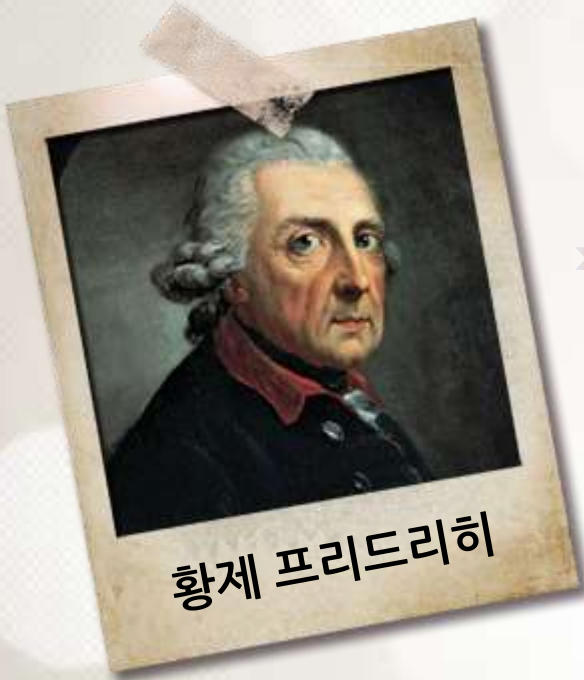
파도바대학

- 1341년에 처음 시체를 해부

볼로냐

- 15세기부터 1년에 2회 시체해부

➡ 페스트가 유행할 때 : 교황의 소망에 따라
프랑스 아비뇽에서 시체해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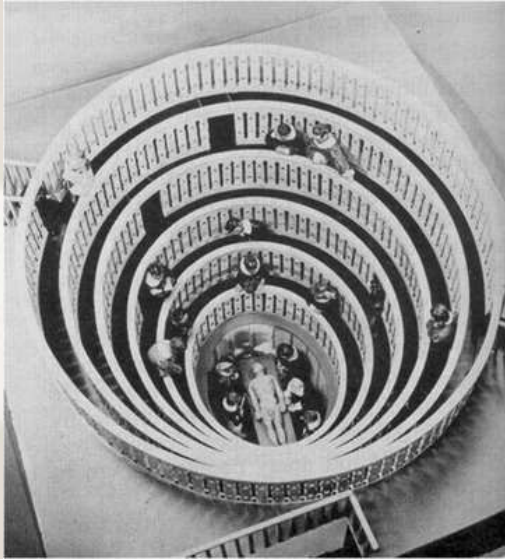


황제 프리드리히

- ➔ 1240년 해부학을 살레르노의 의사와 외과의의 **필수 교육과목으로 하는 법령**
- ✓ 몬디노의 해부학 교과서가 오래도록 교육에 사용
- ✓ 시체를 해부하여 여러 개의 해부도 작성
- ✓ 몇 가지 국소해부학에서 새로운 지견이 발표

‘권위에 대한 맹종’ 때문에
갈레노스의 해부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

해부학 강의




- ➔ 원형 계단강의실 가운데, 혹은 한쪽 면에 시체를 놓음
- ➔ 교수가 강단 위에서 책을 펴고 강의
- ➔ 해부하는 사람이 메스로 시체를 절개
- ➔ 다른 사람이 긴 막대기로 그 부분을 가리키는 식
- ➔ 참관 학생은 20명에서 30명으로 해부는 4일에 걸쳐 실시

갈레노스의 해부학에서 말하는 장기만 보고
더 이상의 작업이나 연구는 하지 않음

2

르네상스
시대 의학



르네상스 시대

- ✓ 대략 15, 16 세기
- ✓ 경제적 : 화폐경제가 활발
- ✓ 정치적 : 세속군주와 도시 부르주아지의 힘이 강화

르네상스

- 베살리우스(Vesalius)와 프라카스토로(Fracastoro), 파레(Pare), 파라셀수스(Paracelsus)
- 갈레노스(Galenos)와 이븐 시나(Ibn Sina)등 고대와 중세 이래의 **정통 의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**
- 위세는 사라졌으나, 전염병인 **페스트(흑사병)**와 **매독**이 유행

해부학,
새로운 질병관,
외과의 복권

사혈, 맥박진단법,
요진단법 등에
대한 비판

고대의 갈레노스

- 동물해부를 토대로 인체의 구조를 유추

중세시대

- 인체해부는 실시

르네상스시대

- 근대 서양의학의 성립과 발달에 커다란 기여

중세전기의 암흑시대를 지나고 사체해부 및 해부실습이 증가

- ✓ 법의학적 이유로 **볼로냐**와 **피렌체**에서 사체해부가 시작
- ✓ **몽펠리에** 그리고 14세기 중엽 페스트의 창궐 때문에 교황의 후원을 받으면서 **아비뇽**에서 인체해부가 많이 실시

갈레노스 이래의 해부학 지식에는 발전도 변화없었음

베살리우스(Andreas Vesalius)의 『사람 몸의 구조에 관하여』 (De Humani Corporis Fabrica)



스스로 직접 인체해부를 그것을 근거로
인체해부도를 새로운 인쇄술로 펴낸 첫 번째 해부학 책

- ✓ 의사와 약종상을 하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, 작은 동물 해부를 즐김
- ✓ 벨기에의 루뱅대학과 프랑스 파리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동물과 인체를 해부
- ✓ 동향인 화가 반 칼카르(Jan Stephan van Calcar)와 공동작업으로 1543년 스위스 바젤에서 7권으로 된 해부학 책을 출간

외과를 경시하고 사체해부 등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경멸하는 의사들에 대해 저서에서 언급

✓ 사람 대신 원숭이, 돼지, 개 등을 해부하고 그 결과를 인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생겼던 **갈레노스의 오류**

→ 다섯 엽의 간, 일곱 조각의 복장뼈, 두 부분으로 된 아래턱뼈, 2중 담관, 뿔 모양의 자궁 등

스스로
해부실습을
통해 교정

“ 실비우스(Sylvius)를 비롯한 많은 의학교수들이 비난, 질시, 박해를 가해 해부학 연구를 단념 ”

실리우스의 사체 해부

갈레노스의 해부학 책에 담긴
여러 가지 **잘못을 인정**

→ 갈레노스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
갈레노스 이후 천 몇 백 년 사이에 **사람의 해부학적 구조가
변화**했다는 천재적인 변명



- ✓ 해부는 비천한 신분인 이발사외과의 몫
- ✓ 교수는 갈레노스 등의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해부학 책을 강독

일탈한 행동을 통해, 손수 해부하고 관찰함으로써
새로운 의학의 시대

베렌가리우스 Berengarius

100구 이상의 시체를 해부하고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보이는 대로 묘사한, **최초의 해부도**를 1521년에 만들

- ✓ 르네상스 예술사조의 영향으로 **많은 화가들**이 인체의 **정확한 묘사**에 열중
- ✓ 피렌체에서는 의사, 약제사, 화가 등이 같은 동업 조합에 소속하는 등 **예술가와 의사가 밀접한 관계**
- ✓ 레오나르도 다빈치(Leonardo da Vinci)가 남긴 다수의 해부도

베살리우스의 행위를
통해 해부학에 발전

생리학 발전을 촉발

유스타키우스
(Eustachius)

- 가운데 귀의 유스타키우스관, 부신, 가슴관과 6번째뇌신경인 가돌림신경을 발견

팔로피우스
(Fallopian)

- 난소와 자궁을 연결하는 팔로피우스관(나팔관)과 귀의 세반고리관을 처음으로 기술

파브리키우스
(Fabricius ab
Aquapendente)

- 정맥판(靜脈瓣)을 정확히 해부학적으로 묘사하여, 하비가 혈액순환 이론을 세우는 데 커다란 영향